논어 12편 안연 6장 · 원문·풀이

子張問「明」。子曰：「浸潤之譖，膚受之愬，不行焉，可謂明也已矣。浸潤之譖，膚受之愬，不行焉，可謂遠也已矣。」

독음 · 자장문명 자왈 침윤지참 부수지소 불행언 가위명야이의 침윤지참 부수지소 불행언 가위원야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조금씩 스며드는 참소와 절실하게 호소하는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밝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張 베풀 장 장 / 問 물을 문 문 / 明 밝을 명 명

曰 가로 왈 / 浸 적실 침 침 / 潤 불을 윤 / 之 갈 지

譖 참소할 참 참 / 膚 살갗 부 부 / 受 이을 수 수 / 愬 고할 소 소

不 아닐 불 / 行 다닐 행 행 / 焉 어찌 언 언 / 可 옳을 가 가

謂 고할 위 위 / 也 어조사 야 / 已 이미 이 이 / 矣 어조사 의

遠 멀 원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